

■ 광주시·전남도 행정사무감사

관광산업까지... 광주문화재단 방만 운영

문화도시 정체성 못살리고 적립기금 부적정 운용도

출발한 지 1년도 안 된 광주문화재단이 지역문화를 대변하는 정체성 있는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사업 영역을 문어발식으로 넓히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적립 기금을 부적정하게 운용하고 공공 횡령 혐의로 해임이 요구된 직원을 제때대로 징계수위를 낮추는 등 부적정한 업무처리도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이춘문(민·서구 1) 의원은 21일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문화재단이 관광 분야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면서 전통예술의 발굴과 육

성을 소홀히 해 차별화된 지역 문화 예술의 정체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월 출범한 광주문화재단은 ▲문화향유기회 확대 ▲축제의 브랜드화 ▲문화 콘텐츠 개발 등 7가지를 추진전략으로 내세웠으나 전통예술의 발굴과 육성 전략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광주문화재단은 전통 예술의 육성과 브랜드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등 무형의 지역 자원인 전통예술 발전 방안을 획기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

구했다.

전주연(민노·비례) 의원은 "당사자들의 의사 확인도 없이 시립 소년 소녀합창단을 문화재단 산하로 무리하게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문화 예술 분야에서부터 관광산업에 이르기까지 공룡 집단화돼 가는 문화재단에 우려의 시각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민중(민·광산 4)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재단 운영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음에 따라 문화재단은 지난 2월 28일 광주시가 배부한 기금 80억 원 중 60억 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20억 원 을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7000만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김영남(민·서구 3) 의원은 또 "문화재단은 지난 7월 광주시 감사실에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 공유물품 1300여 만원을 무단 횡령한 직원에 대해 해임조치를 통보했지만, 정적 2개월로 징계수위를 임의로 낮췄다"며 "광주시 감사결과에 대해 아무런 기준 없이 사적인 잣대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일벌백계의 의미가 퇴색됨에 따라 의결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선정 사무처장은 "출범 첫 해라, 예산과 회계분야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며 "의욕적으로 문화 예술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다소 무리가 따르긴 했지만 광주만의 공연을 운영비로 사용함으로써 7000만원의 이자 수입 손실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한미FTA 'D데이' 이틀앞... 갈등 고조

여야 협상과 '6인 협의체' 회동 막판 중재 관심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국회 처리 'D데이'(D-day)로 거론되는 24일을 이틀 앞두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21일 "더 이상 협상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본회의 직권상정을 통한 비준안 표결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민주당은 투자자국가소송제(ISD) 재협상에 관한 문서합의 없이 비준안을 강행처리하면 물리력을 동원해 결사 저지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온건파들이 ISD 문서합의를 고리로 극적 대타협을 위한 막판 협

상을 시도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견해 차로 인해 절충점 모색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24일 본회의에서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해 보이며, 이에 앞서 22일과 23일로 예정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차원의 1차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금명간 박희태 국회의장에 게 비준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경우 박 의장은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

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장관급 이상 서면합의를 받기 위한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이런 조치 없이 직권상정이란 날치기를 강행하면 이번 국회는 과국으로 끝날 수밖에 없고, (국민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여야 협상과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6인 협의체' 회동을 연 자리에서 한미 FTA 대결 정국의 해소를 위해 여야 지도부가 유연한 자세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산물 국가수매제 촉구 벼 아적시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회원들이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한미 FTA반대와 기초농산물 국가수매제 도입을 촉구하며 벼 아적시위를 벌이고 있다. 농민들은 1t, 5t 트럭 50대가량을 동원해 800kg들이 100가마, 40kg들이 200가마 등 벼를 아적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사고율 2배 ↑

9월말 현재 사고 금액 101억... 전년도보다 32억 증가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물 경기 침체로 담보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신용 보증을 확대한 탓이다.

21일 전남신용보증재단이 전남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출보증을 썼다가 대출자가

갚지 못하는 바람에 대신 보증책임 을 져야 할 보증사고 금액이 지난 9월 말 현재 101억원으로, 지난 2009년(42억)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69억)보다도 32억이 증가했다.

보증사고율(보증잔액에서 사고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도 지난 2009년

1.6%에서 지난해 2.2%, 올 9월 말 현재 4.0%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업체 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09년의 경우 287개 업체에 그쳤지만 지난해 618개로 크게 증가하더니 올 9월 말까지 916개로 급격하게 늘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실

물 경기 침체로 위기에 몰린 영세 중소기업들과 저신용 사업자들에게 대한 보증 기준을 완화했기 때문이다.

전남신용보증재단은 "전체 사고 금액의 62.4%가 저신용 사업자에게 보증 기준을 확대하면서 발생했다"며 "하지만 보증사고율은 9월 말 현재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평균 보증 사고율(4.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영산강 승촌보·죽산보 켈린더 나왔다

4대강 16개보 담긴 켈린더 배포

영산강 승촌보(淸·댐)와 죽산보 상단에는 보 명칭 및 컨셉, 형상화 이미지를 담은 '2012 온라인 켈린더'가 공개됐다.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는 20일 4대강 사업의 대표 브랜드인 16개 보의 이미지를 활용한 2012년 온라인 켈린더를 제작, 배포했다.

'2012 4대강 온라인 켈린더'는 16개 보와 주변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은 이미지를 달력과 결합한 '월 페이퍼' 방식으로, 이미지

상단에는 보 명칭 및 컨셉, 형상화 등 간략한 특징을 설명하여 보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했다.

온라인 켈린더에는 ▲영산강 승촌보(10월) ▲죽산보(8월)를 비롯해 ▲한강지구 이포·여주·강천보 ▲금강지구 공주·백제보 ▲낙동강지구 상주·강정고령·달성·함천창녕·창녕함안보 등의 모습이 담겨 있다.



승촌보



죽산보

희생자 넋 기리고 사진전 열고...

연평도 포격 도발 1주기 추모행사 다채

의 묘역을 참배할 계획이다.

같은 날 연평도 현지에서도 추모 행사가 열린다.

21~25일은 전 군 추모기간이다. 국방부는 전 부대 정문에 '북한의 도발을 잊지 말자'는 내용의 현수

막이나 전광판을 설치하고 부대원들에게 각종 희식 및 음주 가무를 자제하도록 했다.

추모식 당일에는 전 부대에 조기를 게양한다.

국방부와 각 군, 정부부처와 보존

처 홈페이지에는 지난 14일부터 전사 장병을 위한 사이버 참배·추모관이 문을 열었다.

이와 함께 해병대는 22~24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 사진 전시회를 열고 지난해 포격도발 당시 모습을 기록한 사진 70여 점을 선보인다.

22일에는 포항 해병대 교육훈련단 해병의 집에서 전사 장병을 기리기 위한 흥상 제막식이 열린다.

오는 23일 연평도 포격도발 1주기를 앞두고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국민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고 국방부가 21일 밝혔다.

포격 당일인 23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에는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사자 유가족과 군 인사, 시민 등 3000여 명이 참석한다.

참가자들은 추모식 후 故(故) 서정우 하사와 문광옥 일병 등 전사자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대형축하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비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참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침대 및 협탁을 사은품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가질 수 있습니다.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년모임,기업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할인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